

국립민속국악원, 2017년 업무계획

국악 대중화에 '올인'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프란츠 리스트(1811~1886)는 '피아노 리사이틀의 창시자'이자 클라리 슈만과 함께 암보로 피아노를 친 첫 번째 연주자다. 호남오페라단(단장 조장남)은 오는 13일 오후 7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 '프란츠 리스트에 의한 그림들' 피아노 리사이틀을 연다.

호남오페라단, 내일 피아노 리사이틀

이번 공연에는 유럽에서 활동하는 피아니스트 홍은혜(서진)를 초청해 프란츠 리스트의 곡들로 무대를 채운다. 한국이 낳은 작은 리스트라 불리는 홍은혜는 화려한 색채와 풍부한 울림을 가진 피아니스트라는 평을 받고 있다. 공연은 전석 2만원으로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프란츠 리스트'에 의한 그림들

국립민속국악원(원장 박호성)은 2017년 업무 방향을 '국민과 더 가까이, 함께하는 국악'으로 설정하고 국악 대중화를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국립민속국악원은 11일 ▲대표 브랜드창극 <나운규, 아리랑> '시즌 2' 제작 발표 및 순회공연 ▲국악연주단 정기공연 레퍼토리 확장 ▲상설공연 및 계절별 절기공연 연 확대 등 160여회의 공연과 다양한 교육·체험 사업 등이 포함된 2017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국악원의 브랜드 창극 <나운규, 아리랑>은 2015년 4월 '제1회 창극 소재 공모전'을 시작으로 2년여에 걸쳐 완성한 작품으로 지난해 9월 초연됐다. 올해는 관객들이 공연에 몰입할 수 있게끔 극본을 비롯한 작곡·편곡에 대한 보완 및 수정을 가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올해 '시즌 2'로 선보일 <나운규, 아리랑>은 오는 2월 10~11일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에서 제작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어 2월 23~25일에는 서울서초동국립국악원과 예약당제주시 제주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하며, 여타지역과도 연계하여 순회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악연주단의 정기공연은 레퍼토리 외부 공연 및 신작 제작으로 구성된다.

상반기에는 창극단의 창극 <춘향실록-춘향은 죽었다>, 무용단의 판소리춤극 <토끼야, 너 어디 가니?>등 이미 작품성이 검증된 레퍼토리로 국악 공연단체가 없는 외부 도시와 연계하여 공연을 펼친다. 하반기에는 창극단이 창작창극을, 기악단과 무용단이 민속공연 레퍼토리 등으로 신작 개발을 이어간다.



브랜드 창극 '나운규, 아리랑'

브랜드 창극 '나운규, 아리랑' 시즌2 제작 국악연주단 정기공연 레퍼토리 확장 상설공연·계절별 절기공연 확대

국악원은 상설공연과 계절별 절기 공연을 확대하기로 했다.

4월~6월, 9월~10월 매주 목요일에 열렸던 <관한루원 음악회>는 <목요 완월정공류 이야기>로, 같은 기간 매월 끝 주 일요일에 개최됐던 <관한루원 일요산책>은 <일요 관한루원국악산책>로 공연 명을 바꿔 선보인다. <토요 국악초대석>은 7·8월을 제외한 3월~11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예음헌에서 매주 색다른 주제로 펼쳐진다. 어린이를 위한 '판소리 동화', 우수예술가를 위한 무대 '풍류마루', 알고 보면 재미있는 국악이야기 '국악티파', 판소리 감상 무대 '판소리마당' 등은 주별별로 배치된

다. 계절별 절기공연에는 봄에 여는 청명 공연이 추가됐으며, 새해설날·정월대보름·여름단오·한여름칠석·가을추석·겨울동지순년엔 각 절기와 계절에 어울리는 공연 내용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이 외에도 국악원은 국악 강사를 파견하는 찾아가는 국악교실 <국악 세상>과 오지와 낙도 등 문화 취약 지역의 학생을 초청하여 1박 2일 동안 국악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즐거운 국악소풍>등 다양한 체험 및 교육 사업들을 추진함으로써 국악의 대중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정해은 기자·남원=유영철 기자



판소리춤극 '토끼야, 너 어디 가니?'

태권도진흥재단, 겨울여행 주간 태권도 체험프로그램 다채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성태, 이하 재단)은 겨울여행 주간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태권도원 무료입장 등 다양한 태권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재단은 겨울여행 주간을 맞아 태권도원에서 "태권도 호신술"을 비롯한 "태권도 시범공연"과 "국립태권도박물관 상설·테마 전시", "타이문과 태권 히어로즈" 애니메이션 상영 등 다양한 체험 및 관람 프로그램을 통해 태권도원을 찾은 관광객들의 겨울여행이 일차게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T1공연장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휴대용품을 이용한 '태권도 호신술(11:30, T1공연장)', 음악에 맞춰 신나게 즐기는 태권체조 '다 함께 태권도'(14:20, T1공연장), 태권도 격파 프로그램 '도전! 격파왕(16:00, T1공연장)' 등을 진행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우진청년작가회의 띠 전 'Da?k', 내달 8일까지

닭은 십이지신 동물 중에 유일한 날짐승으로, 하늘을 날 수 있는 재능과 땅 위에서도 살 수 있는 구조적 특징을 한 몸에 가지고 있다.

닭은 상상의 동물 용과 친하며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일을 하는 동물이라 간주되곤 한다. 이러한 이유로 아직도 많은 민족이나 국가들은 닭을 선호하며 서구에서는 닭을 길조로 여긴다.

미술계에서의 닭은 조형적으로나 색감적으로 멋스러워 작가들이 뜨거운 관심을 갖는 소재이기도 하다.

정유년 닭띠 해를 맞아 이일순·고은화·이철규·서완호·김학곤·양성모·조현동·탁소연·송지호·김수진·김판목·박천복·이주리·이정웅·장영애·조현·최정환·이홍규·강현덕·김용수·박성수·조병철·이은경·박시완·임택준·김동현·김성석·김성수·이효문·이효철 등 30여 명의 작가들은 닭에 대한 상상의 내래를 다양한 작품으로 펼쳐 보인다.

우진문화공간 갤러리에서 열리는 'Da?k' 띠 전에 참여한 이들 작가들은 우진문화재단의 청년작가 공모에 당선된 '우진청년작가회' 소속 회원들로, 하나의 주제로 평소 자신의 작품 세계에서 벗어난 일탈의 전시물들을 각기 선보인다.

전시 관계자는 "작가들 개개인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본인들의 작품을 만나는 이들의 한 해 기운을 짐심으로 기원하였다"며 "작가들이 더 많은 관객과 만나 그 짐스러운 정성을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했다.

전시는 12일부터 2월 8일까지 열린다. 단, 월요일은 휴관이다. **문의 063-272-7223. /정해은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띠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7년 1월 12일>

▷쥐띠
48년생: 초반에는 어려움이 따르며 타인과의 의견 충돌이 있으나 후반에는 잘 해결되는 운이다.
60년생: 뒷사람과 의기투합하라.
72년생: 윤행은 삼가고 현상유지에 집중하는 것이 좋은 운이다.
84년생: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혼자 판단해서 행동하지 마라.

▷소띠
49년생: 때로는 양보하는것이 후에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함을 잊지 마라.
61년생: 타인에게 원망을 살 수 있는 운이다.
73년생: 아직은 시기상조이니 상황을 지켜보며 때를 기다려라.
85년생: 이성과의 불화가 예상되는 운.

▷호랑이띠
50년생: 처음에는 고난이 있으나 이겨나가면 끝에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겠다.
62년생: 풀 울러가듯 상황에 따라가면서 대처하라.
74년생: 익숙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방심하면 실수가 따르니 주의하라.
86년생: 상대에게 통보하는 식의 행동은 금물.

▷토끼띠
51년생: 타인의 도움은 받기 어려우니 혼자 바쁘게 움직여야 결실을 맺을 수 있겠다.
63년생: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구실을 주의하라.
75년생: 동성의 조언이 아닌 이성의 조언을 구하면 해결방법이 보인다.
87년생: 급하게만 서두르지 않는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용띠
52년생: 자신의 분수를 지키고 경가망등을 삼가야 하는 운이다.
64년생: 고인이 있는 사람은 적극적 움직여라.
76년생: 사소한 일에 오해가 생기는 운이니 언행에 주의하라.
88년생: 새로운 것을 취하기보다는 옛것을 지키는 것이 좋겠다.

▷뱀띠
53년생: 결으로는 화려하나 실속이 없는 운.
65년생: 앞으로 나가는 때가 아니다. 내실을 다지고 때를 기다려야 하는 운이다.
77년생: 외부의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라.
89년생: 경쟁자, 동기간으로 인해 신경이 곤두서는 운이다. 자중하라.

▷말띠
54년생: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때이다.
66년생: 매사 행동하기 전에 미리 말로 신뢰를 주고 움직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78년생: 금전적으로 손해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라.
90년생: 문서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양띠
55년생: 심적으로 불안한 운이다.
67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유리한 위치를 얻을 수 있다.
79년생: 조심스럽게 전진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급하게 움직이면 실패가 따르니 주의하라.
91년생: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는 운이다.

▷원숭이띠
56년생: 급하게 목적 달성을하려 하지 마라.
68년생: 두 손을 앞서게 되면 판단유리가 생기는 운이니 주의하라.
80년생: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마라.
92년생: 매사 하고자 하는 일에 계획을 잘 세워야 하는 운.

▷닭띠
57년생: 타인과의 불화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라.
69년생: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운이다.
81년생: 한쪽에만 집중하기에도 힘이 드는데 어찌 둘을 얻을 수 있겠는가.
93년생: 빛 사람의 조언에 해답이 들어 있으니 도움을 받아라.

▷개띠
46년생: 구설수와 시비가수 쉽게 따르는 운이다.
58년생: 금전운이 막혀 있는 형국이니, 무리한 추진은 삼가고 내실을 다져야 할 운이다.
70년생: 주변의 조언과 도움을 구하는 것이 일 처리에 도움이 된다.
82년생: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무리한 시도는 삼가야 하는 운이다.

▷돼지띠
47년생: 현상을 유지하면 얻지는 않으니 큰 움직임은 피하라.
59년생: 타인과의 주요한 만남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은 운이다.
71년생: 인덕은 버리지 마라.
83년생: 이성에 대한 주의의 요하는 운이니 조심하라.